

[ 바둑 ]

# 계급장 댄 반상의 전쟁 스타트

###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12~22일 32강전-대결전 예고

세계 바둑사에 한 획을 그은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이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 64강전 C.D조 대국에서 이세돌, 천시위엔, 원성진, 왕레이, 장하오, 최규병, 박영훈, 박시열, 이아마유타, 온소진, 조한승, 안형준, 황이중 등이 승리를 거두면서 32강에 올랐다.

최규병 9단이 중국 신에 강호인 니우위엔 6단을 꺾고 노익장을 과시한 것을 비롯해 이세돌 9단은 중국신예인 라오싱윈 3단을 가볍게 꺾고 32강에 올랐다.

특히 조한승 9단은 세에러 7단계에 시간승을 거뒀고, 원성진 9단, 박영훈 9단, 박시열 초단은 각각 윤정위 3단, 안조영 9단, 홍석의 아마7단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반집승을 거두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 바둑 챔피언십 개막식 모습. <사바오로 제공>

며 본선 32강에 합류했다. 15개국 중 8편이 불계로 승패가 가려지는 난타전이였다.

이번 64강전에서 대회 본선시드, 와일드카드를 배정받은 선수중 본선시드 8명(이창호, 이세돌, 강동윤, 구리, 장하오, 조지훈, 이아마유타, 저우권신 9단), 와일드카드 2명(조훈현, 원성진) 등 총 10명 가운데 조지훈 9단만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64강 출전선수 35명 중 18명이 본선 32강에 올랐다. 19명이 출전한 중국은 9명, 대만 2명, 일본 1명, 아마추어 1명 등 본선 32강 진출했다. 우승 상금은 3억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본선 32강은 12~22일까지 한국기원에서 속개된다. 결승 5번기는 오는 5월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 아마 바둑 경사났네

### 김정현 등 5명 사상 첫 국제 프로그전 64강

### 연구생 이지현, 中 스위에 격파 32강 '기염'

한국 아마추어 5명이 사상 첫 세계 프로그전 본선 무대에 올랐다. 아마추어에게 문호를 전면 개방한 비씨카드배 월드 바둑 챔피언십 프로-아마 통합 예선에서 김정현(17), 이지현(17·사진), 전준학(18), 정찬호(23), 홍석의(23) 등 아마추어 기사 다섯 명이 경쟁한 프로 기사들을 꺾고 본선 64강에 올랐다. 이들 중 김정현, 이지현, 전준학은 한국기원 연구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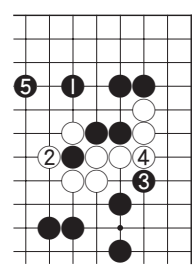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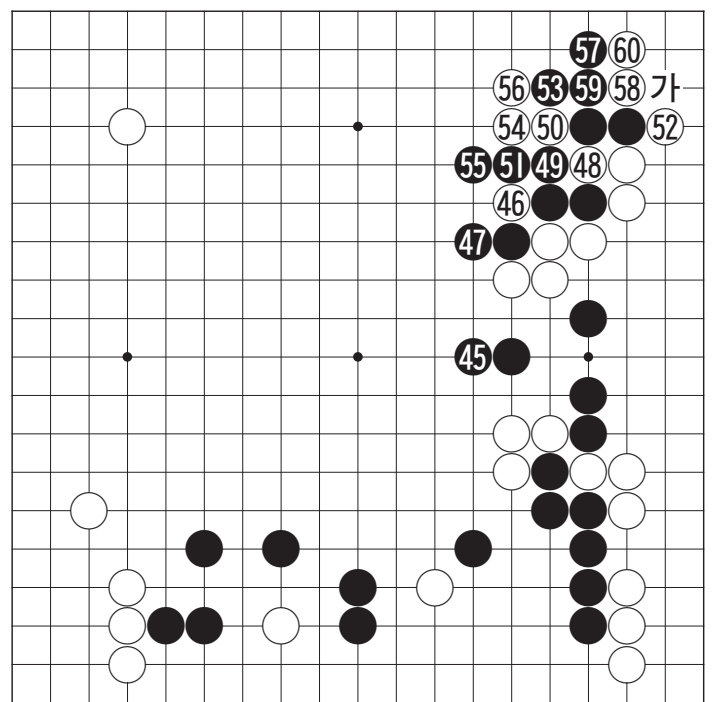
이 가운데 5명이 본선 티켓을 따냈다. 한국 아마추어 가 세계 프로 대회 본선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또 세계 대회 사상 처음으로 64강까지만 상금을 지급하는 컷오프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본선 64강에 오른 5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의 성적은 1승 4패에 그쳐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유일한 승자는 이지현 아마 5단. 이지현은 중국의 스위에 4단계 169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32에 진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 '무리수가 된 딜릭수'

### 최강부 준결승 2국 4보(45~60)

### 白 선계성 6단 黑 오배령 6단



<참고도>

우상귀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오배령 6단은 흑 45로 두어 철통같은 수비를 펼쳤는데 이 수로는 먼저 47에 늘 수도 있었다. 선계성 6단은 48로 나가 끊고싶은 욕망을 누르며 백 46으로 단수쳤는데 오배령 6단이 딱딱 미끼를 물고 만다. 기세상 흑 47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 대무리수가 되었다. 앞서 얘기한대로 이 수로는 45를 두기 전에 나가두든지 해야 했고 지금은 '참고도'의 흑 1로 몰러설 자리였

다. 백 2로 따내면 계속해서 5로 지키면서 전체를 노려 흑이 유망했다. 선계성 6단이 몰살호기 백 46으로 나가 50으로 우지근 끊어버리자 난리가 났다. 흑 돌들이 지리멸렬이다. 오배령 6단은 그 와중에도 53으로 단수치는 등 완강히 버티고는 있으나 이미 호미로 막을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지경이 되었다. 흑 57로도 일단은 '가'로 막고 버텨야 했다. 오배령 6단은 백 60까지 바로 덮쳐오는 강수를 깜박하고 57로 후구를 쳤으나 백 60까지 바로 압박하는 수가 성립하여 흑이 괴로운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여류 VS 시니어

### 지지옥선배 개막

45세 이상의 시니어 기사들과 여자 기사들이 팀을 꾸려 대결을 펼치는 제3기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이 지난 4일 개막했다.

예선전을 별도로 치러 각각 8명씩을 선발한 뒤 시니어 랭킹 1~3위 3명(조훈현, 서봉수, 최규병 9단), 여류 랭킹 1~3위 3명(루이나이웨이, 박지은 9단, 조혜연 8단)이 참여한다.

또 후원사 추천 시드를 받은 차민수 4단(시니어), 이민진 5단(여류기사) 등이 합류해 총 시니어 12명, 여류기사 12명이 연승전으로 승패를 겨룬다. 본선 대국은 이기는 팀이 상대팀의 다음 순번과 패할 때까지 대결하는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연승전으로 펼쳐진다.

우승 상금은 7천만원,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

## 이세돌, 17개월째 한국랭킹 1위

### 역대 최장기간 신기록 행진...이창호, 1위와 74점차 2위



### 조혜연 8단, 77위→60위 가장 큰 폭 상승

이세돌 9단이 3월 프로기사랭킹에서도 1위를 지켰다.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3월 프로기사랭킹에 따르면 이세돌은 9천73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세돌은 17개월째 1위를 지키며 역대 최장기간 1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농심배에서 장하오 9단과 구리 9단을 연파하며 한국의 우승을 견인했던 이세돌은 천원전 결승과 LG배 결승에서 각각 강동윤 9단과 구리 9단에 패하면서 지난달보다 랭킹점수가 무려 76점이나 하락했다.

주요대국의 승패가 랭킹점수에 직결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상급규모가 큰 대회의 결승에서 패할 경우 랭킹점수가 대폭 하락한다.

2위는 9천661점을 획득한 이창호

9단이 올랐다. 이창호는 KBS바둑왕전에서 강동윤 9단과 이세돌을 이기는 등 2월에 3전 전승으로 랭킹점수를 28점을 끌어올리며 1위와의 차이를 불과 74점으로 좁혔다.

이세돌과의 바둑왕전 결승에서 승리하고 최철한 9단과 벌이고 있는 응씨배에서 완봉으로 우승할 경우 이창호는 18개월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 지난달 천원전 타이틀을 따낸 강동윤 9단은 35점 상승한 9천604점을 얻어 4개월째 3위자리를 고수하며 빅3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갔다.

2월에 대국이 없었던 원성진 9단은 9천505점을 유지하며 4위를 지켰으나, 5위 박영훈 9단이 비씨카드배 16강에 오르는 등 지난달보다 4점이 상승한 9천494점을 얻어 11점차이로

순위	기사명	랭킹 점수	점수 변동
1위	이세돌	9735	-76
2위	이창호	9661	28
3위	강동윤	9604	35
4위	원성진	9505	0
5위	박영훈	9494	4
6위	윤준상	9462	2
7위	최철한	9347	17
8위	목진석	9247	-23
9위	이영구	9241	19
10위	조한승	9237	11

바짝 쫓기게 됐다. 6위에는 지난달에 이어 윤준상 7단이 올랐으며 최철한 9단은 9천447점을 얻으며 7위에 랭크됐다. 비씨카드배에서 무명의 이용찬 5단계에 패한 목진석 9단은 23점 하락한 9천427점으로 지난달에 이어 또다

시 한단계 하락하며 8위로 주저앉았다. 지난 해 11월까지 3위를 지키던 목9단은 불과 4개월만에 5계단이나 하락했다.

한편 허영호 6단은 지난달 공식전에서 3연승하면서 11점이 상승해 생애 처음으로 10위권 진입에 성공하는 기쁨을 맛봤으나 지난달 10위였던 조한승 9단은 랭킹제 도입후 처음으로 10위권에서 탈락하며 11위로 떨어져 허비가 교차했다.

100위권내의 선수중에서는 조혜연 8단이 77위에서 60위로 무려 17계단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조훈현 9단은 23위를 차지하며 50대 이상 선수중 유일하게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가사 중에는 루이나이웨이 9단(55위)이 지난달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여자 2위였던 박지은 9단(61위)은 조혜연 8단계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연필뉴스

## 구리 9단, 中 NEC배 2연패

### 공지에 7단 꺾어

중국의 구리 9단이 LG배 우승에 이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추가했다. 구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4회 중국 NEC배 결승전에서 공지에 7단을 맞아 192수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패한 공지에 7단은 NEC배 결승전에 두 차례 올랐으나 모두 구리의 벽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중국 NEC배는 초대 우승자인 차오다위안 9단을 비롯해 장하오 9단(3회), 사오웨이강 9단(2회) 등 많은 스타급 기사들을 탄생시켰다. 우승 상금은 20만위안.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합격은 김영에서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4월 1일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차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전도 시작)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합격을 앞서간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습니디. =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 급 중문제풀이 4주 완성 행정부서사원차량약공경호건호지방술 (영어)10 가능직 (영어)10 가능직

= 홈 지방직 (시험6월23일) =  
서울803, 부산169, 대구92, 인천382, 광주56  
대전101, 울산80, 경기805, 강원142, 충북155  
충남147, 전북182, 전남165, 경북209, 경남251

개강 3월 16일(주·아·미·모)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 · 사상적다모집예정  
대전78, 울산42, 경기273, 강원178, 충북113  
충남168, 전북118, 전남190, 경북128, 경남110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고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